

# 장애자녀 주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연구

한희창<sup>1</sup>, 김웅수<sup>2\*</sup>

<sup>1</sup>장애전문이화어린이집 원장, <sup>2</sup>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treng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f the Primary Caregivers of Disabled Children

Hee-Chang Han<sup>1</sup>, Woong-Soo Kim<sup>2\*</sup>

<sup>1</sup>Director, Ewha Daycare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2</sup>Dept. of Social Welfare, Han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행복감에 관련성이 있다고 규명된 요인들 간의 직접·간접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정책적인 대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라북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자녀의 주양육자 43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건강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자녀 주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가족건강성,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융복합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자녀,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 행복감, 장애인복지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primary caregiver of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 comprehensively identification of their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direc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happiness of the primary caregiver of disabled childre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using data collected from 430 primary caregivers of disabled children in three regions of Jeollabuk-do.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social support has a direct effect on the happiness of the primary caregiver of disabled children,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via family strength. Second, the primary caregivers of disabled children's family strength was discover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Convergence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o promote social support, family strength, and feelings of happiness for primary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Disabled Children,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Family Strength, Happiness, Social Welfare for Disabled People

\*본 논문은 제 1저자 한희창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힘.

\*Corresponding Author : Woong-Soo, Kim(holyws@hanil.ac.kr)

Received July 10, 2021

Revised July 30,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부모와 가족체계에 큰 변화를 주는 요인은 바로 자녀의 출생이다.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모는 긴 기다림 끝에 기쁨과 행복, 친밀감,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 걱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그러나 부모는 장애자녀가 태어나면 기쁨과 행복 같은 만족적인 긍정적 정서가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불행과 고통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 장애자녀 주 양육자는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행동과 문제로 인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양육과정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어 자기 삶의 행복마저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2]. 특히 장애아동 주 양육자는 비장애 아동의 양육자에 비해 사회적 자원체계와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나 사회적 자원을 교류하는 데 한계가 많다[3].

왜냐하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 부모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장애자녀 주 양육자는 학교 돌봄이 어려워졌으며, 가정 내 양육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장애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정보, 자원, 주변의 도움과 심리·정서적 지지 등이 지원되지 못할 때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자녀 양육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고립은 장애자녀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자녀 주 양육자와 그 가족은 확장된 사회 연결망과 더불어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부족할 때 돌봄 부담, 양육스트레스, 무기력 등을 경험할 수 있다[4].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주 양육자에게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아동 주 양육자는 사회적지지를 통해서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긍정적인 자원을 얻게 된다. 장애아동 주 양육자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는 대부분 매개

변수 또는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5-7],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독립변수로서 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주목하고 있다[3, 8]. 사회적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며, 다양한 정보 및 긍정적인 자원을 형성하도록 한다. 사회적지지를 받는 장애아동 어머니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져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장애자녀 주 양육자는 주변의 사회적지지를 통해서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게 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감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목적과 현실에 대한 초월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야기되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들로 나타난다.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에 대한 격려와 관심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아동 가족관계에서 부모나 가족이 장애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부모의 행동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적 관계이다.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선적이기보다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의 발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11, 12].

장애자녀에게 좋은 가족이란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족이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의 장애를 알고 인정하기까지 충격과 고통을 한 가족의 경험으로 재발견하고 가족의 일원에서 장애아동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양질의 가족은 아동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

이는 가족건강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족의 건강성 역시 행복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아동 주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에서 정서적, 평가적 지지가 높아질 때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 간의 유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13, 14, 15].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자녀의 양육자의 스트레스 삶의 행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장애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함이나 고립감, 돌봄 부담감, 장애 자녀의 발달상 문제로 인한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6].

그러나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이 중요하게 주목 받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자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행복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거나 행복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7, 15, 17]. 둘째,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후 행복감 측정된 연구가 있다[18]. 셋째, 장애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있다[10, 14, 19, 20].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이나 단순히 인과관계만을 제시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상호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장애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 등의 상호적인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자녀 주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보호 요인으로서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 행복감 변수 간의 모형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요인을 총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자녀를 둔 주 양육자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향과 융복합적인 정책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 G, Y, J 지역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장애자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 5일부터 4월 23일이었으며 자기기입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 중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소속된 위원의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에게 설문

을 받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총 430부를 배부하여 4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390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 측정은 이승현과 유성무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1]. 행복감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행복감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사회적지지는 박지원[22]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도구를 고유빈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3]. 사회적지지는 정서지지에 대한 7문항, 정보지지에 대한 6문항, 물질지지에 대한 6문항, 평가지지에 대한 6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 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Chronbach's  $\alpha = .97$ 로 나타났다.

#### 2.2.3 매개변수

매개변수인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스트레스 검사(PSL: 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한 허정옥이 축소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31문항으로 아동의 상태 및 예후로 인한 스트레스(11문항), 신체·사회·경제 스트레스(13문항),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7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이강훈의 연구에서 다룬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25].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10문항, 가족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관련된 9문항,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관련된 6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전체의 Ch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 2.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가족의 경제수준을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부호화하여 활용하였고, 연령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1)부터 매우 잘 사는 편(5)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2.3 자료분석방법

사회적지지가 장애자녀 양육자의 행복감의 영향력과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척도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자녀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행복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매개변수인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 기반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장애자녀 양육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대상 390명 중 여성이 381명(97.7%)으로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 분포에서는 40대인 경우가 193명(49.3%), 30대가 92명(23.6%), 50대인 경우가 79명(20.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대학교졸업이 45.1%, 고졸이 44.6%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241명(6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3.2 연구모형 분석결과

#### 3.2.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2와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중 절대적합도지수인  $\chi^2$ 검증 결과는  $\chi^2=488.935(df=85, p>.001)$ 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13, TLI=.903, NFI=.901로 모두 기준치인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Variables

(N=390)

Categories		N	%
Sex	Male	9	2.3
	Female	381	97.7
Age	20	5	1.3
	30	92	23.6
	40	193	49.3
	50	79	20.3
	60	21	5.4
	<i>M(SD)</i>	16.53(1.49)	
Economic Level	1(very low)	14	1.3
	2	121	11.2
	3(middle)	493	73.6
	4	127	11.8
	5(very high)	22	2.0
	<i>M(SD)</i>	3.02(.60)	
Academic Grade	1(very low)	59	5.5
	2	239	22.2
	3(middle)	530	49.2
	4	191	17.7
	5(very high)	58	5.4
	<i>M(SD)</i>	2.95(.91)	

0.9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090로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RMR=.030로 기준치인 .05보다 낮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연구는 모형의 적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Table 2. Goodness-of-fit index

	$\chi^2$	p	df	RMR	GFI	NFI	TLI	CFI	RMS EA
Model fit	483.935	.000	85	.030	.890	.890	.903	.913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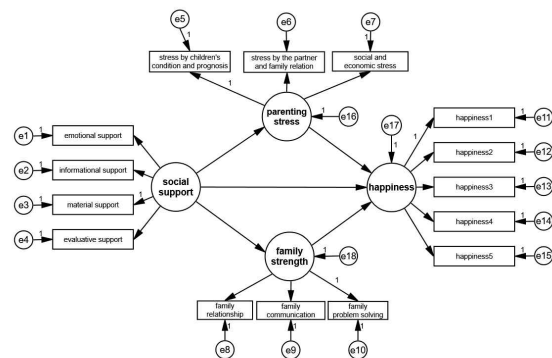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2 연구모형의 분석

사회적지지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249, p<.001$ ), 장애자녀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12, p<.001$ ). 행복감에 대한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행복감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50, p<.001$ ), 장애자녀 부모의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stimates of model

Path	Estmate	S.E.	C.R.
	B( $\beta$ )		
Social Support→ Happiness	.246(.249)	.059	4.164***
Social Support→ Family Strength	.548(.612)	.046	11.838***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145(-.186)	.043	-3.368***
Family Strength→ Happiness	.496(.450)	.070	7.133***
Parenting Stress→ Happiness	-.049(-.039)	.057	-.858

\*\*\* $p<.001$

### 3.2.3 매개효과 분석

장애자녀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지지,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Table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지지가 장애자녀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ocial Support → Happiness	.249**	.282*	.531**
Social Support→ Family Strength	.612**	.000	.612**
Social Support → Parenting Stress	-.186*	.000	-.186*
Family Strength → Happiness	.450*	.000	.450*
Parenting Stress → Happiness	-.039	.000	-.039

\* $p<.05$ , \*\* $p<.01$

## 4.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한 연구모형은 절대적합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가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가족의 행복감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지지와 더불어 다양한 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개입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건강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장애자녀 양육자들이 애정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정서적, 물질,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을 가족 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담이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감 역시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갖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은 심리정서적 그리고 정보적 지지와도 연관되어 있어 뒷받침해줄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치료와 프로그램 개입에 있어 바우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아동의 수당을 현재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지어 지원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곁에서 조언이나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질, 인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가족, 친척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부모와 가족 상담, 장애자녀를 둔 가족들의 정보제공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장애자녀 주 양육자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족상담,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자조집단참여를 통해 다른 장애자녀를 둔 가족 간의 교류를 통하여 유대관계와 의사소통의 훈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양육스트레스 역시 직접효과는 없지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주 양육자의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확대, 주 양육자를 위한 충분한 쉼과 회복을 위한 휴가 인센티브제(안식년)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장애자녀 양육자의 행복감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서 장애자녀 양육자를 지원할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와 주요 요인 간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종단연구 등을 통해 예측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자녀 양육자의 행복감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 S. Keum, Y. H. Shin & H. Y. Kim.(2016).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Depression among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171-178. DOI : 10.5762/ KAIS.2016.17.2.171
- [2] M. R. Kim & M. Y. Kim. (2013). A study on the level of depression and parent efficacy of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ome areas of Daeje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8), 303-313. UCI : G704-002010.2013.11.8.017
- [3] H. C. Yong. (2020).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Family Quality of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Parenting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7(2), 53-64. DOI : 10.35734/karp.2020.27.2.004
- [4] Y. H. Nam, Y. S. Kim & S. H. Yeom.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amily Adaptability to Families Burde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2), 49-72. DOI : 10.16884/JRR.2016.20.2.49
- [5] J. H. Lee, O. I. Park, J. H. Kim & J. S. Park. (2013). The Effect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ir Parents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1), 13-25. 2013. UCI : G704-001337.2013.24.1.001
- [6] S. K. Kim. (2010). *Maternal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7] S. J. Lee & S. S. O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Mothers of the Child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Testing a Mediating Model of Active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1), 27-45.
- [8] A. L. Kim & M. S. Kim. (2020).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Meaning-making Between Social Support and Bringing-up Stress of the Par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22, 45-65. DOI : 10.37918/kce.2020.05.122.45
- [9] G. S. Kim. (201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family health: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Seoul.
- [10] Y. H. An. (2016). Impact of Parental Intelligence on Happiness in Parents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 473-492. UCI : G704-001586.2016.16.1.021
- [11] H. J. Jung & J. H. Lee. (2009). A Study on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Social Adaptation of Autistic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5, 167-200. DOI : 10.16975/kjfs.2009..25.007
- [12] M. S. Suk. (2013).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Function between the Disabled Family and the Non-Disabled Family: An Application of the McMaster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2), 105-131. UCI : G704-001932.2013.18.2.006
- [13] H. O. Kim, K. H. Kim & J. H. Park. (2009). Study of grounded theory for disability acceptance and hope of family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7, 35-72. DOI : 10.16975/kjfs.2009.27.002
- [14] Y. H. An, S. O. Hong & J. Hong. (2016). Relationship of Paternal Participation to Maternal Stress and Happiness in Parents of Disabled Preschool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6, 49-78. UCI : I410-ECN-0101-2016-375-002318311

- [15] A. S. Park. (2019).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ild-Rearing Stress of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2), 93-103.  
DOI : 10.20496/cpew.2019.6.2.93
- [16] B. J. Jeon. (2016).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63-72.  
DOI : 10.14400/JDC.2016.14.9.63
- [17] H. C. Yong, K. R. Hwang, I. Y. Ko & C. Kim. (200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Life Quality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6(2), 115-134.  
UCI : G704-SER000009521.2009.16.2.005
- [18] J. Y. Kim, Y. S. Kang & Y. J. Lee. (2019). Changes in the Happiness of Parents, who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y-based Coffee Culture Program,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1), 1-26.  
DOI : 10.23944/Jsers.2019.03.58.1.1
- [19] K. S. Chung, J. K. Park, E. S. Choi, B. S. Seo & H. K. Park. (2013). A study of factors which influence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 153-173.  
DOI : 10.18023/kjece.2013.33.1.008
- [20] E. J. Park, J. K. Park & E. R. Kim. (2018). Parenting Efficacy and Happiness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0(4), 125-153.  
DOI : 10.21075/kacsn.2018.20.4.125
- [21] I. C. Lee & S. M. Yoo. (2007). Development of a Quotient for Health, Happiness, and Peace(HSP-Q) with Exploratory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5), 2161-2171.  
UCI : G704-000930.2007.9.5.001
- [22]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3] Y. B. Koh & J. S. Chae. (2014).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ippotherapy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7, 699-714.  
DOI : 10.51979/KSSLS.2014.08.57.699
- [24] J. O. Heo. (2007). *Development of the rearing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strument of parents of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analysis on characteristics thei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5] G. H. Lee. (2015). *Analysis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t's Predictor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한 희 창(Han, Hee-Chang)

장학원



- 2008년 8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2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장애전문이화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디아코니아

· E-Mail : hanhi@daum.net

김 웅 수(Kim, Woong-Soo)

장학원



- 200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7년 7월 : 브레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holyws@hanil.ac.kr